

전남도, '관광객 6천만 시대' 조기 달성 성큼

천사대교·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
서남권 관광 인프라 속속 확충돼
생태자원 중심 내륙관광 활성화도

전남도가 민선 7기 목표로 정한 '관광객 6천만 시대' 조기 달성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최근 잇따라 구축되고 있는 서남권 관광인프라 등 서남권 개발에 이어 역사문화·생태자원 중심의 내륙권 개발까지 권역별 관광자원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서남권 랜드마크로 불리는 신안 천사대교와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인 목포해상케이블카가 잇따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서남권 관광시대를 열었다.

지난 4월 개통 이후 이미 100만여명이 훌쩍 넘는 관광객들이 다녀간 천사대교 외에도 총연장 3.23km의 국내에서 가장 긴 목포해상케이블카가 지난 6일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유달산과 다도해, 항구, 그리고 목포 원도심 등 다양한 비경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목포 근대문화유산도 인기 드라마를 통해 알려지는 등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목포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 11만4천38㎡ 구역은 옛 목포 일본영사관과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등을 비롯한 일제강점기와 해방이



지난 7일 본격 운영에 들어간 목포해상케이블카가 고하도스테이션을 출발해 높이 155m 주탑으로 향하고 있다.

무등일보 DB

후까지 아우르는 근대 건축 문화 유산이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연말 개통 예정인 길이 1천820m의 칠산대교(영광-영산-무안-해제)가 완료되면 천사대교와 함께 서남권 교통·관광인프라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서남권 관광인프라가 속속 구축되면서 서남권 지자체들이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 경쟁에 나서 그동안 동부권에 집중됐던 관광객들이 전남 전 지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여기에 전남도는 영산강·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고대 역사문화 자원과 수려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내륙지역도 생태문화 관광 중심지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내륙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생태 문화관광 개발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남부권(남해안) 광역관광개발 사업 ▲중소형 마이스산업 육성 ▲내륙관광 활성화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 최고 관광도시를 자리매김한 여수시와

순천시 등 기존 동부권에 서남권, 내륙권 등 3개 권역 관광활성화가 이뤄지면 애초 계획했던 2022년 관광객 6천만 달성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동부권으로 관광객 쏠림현상이 있었으나 서남권에 관광인프라가 속속 들어서고 내륙권 관광활성화도 도모되고 있다"면서 "전남은 3개 권역을 중심으로 경쟁과 협력하면서 관광 전남시대를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도청원기자 repo333@srb.co.kr

광주신보 이사장 인사청문회 도덕성·보증사고 등 쟁점

변정섭(60) 광주신용보증재단 신임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과 함께 소상공인 신용보증 확대, 보증 부실률 감소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광주시의회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9일 오전 의회 예결위실에서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다.

김학실 의원은 "변 후보자의 운전면허증이 두 번에 걸쳐 취소되고 하루에 속도위반 과태료가 4건이 부과되기도 했다"며 "공공기관 대표라면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 후보자는 "적성검사 만료와 벌점 초과로 두 번에 걸쳐 운전면허증이 취소됐으나 다시 취득했다"고 해명했다.

정무창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현장 중심의 운영을 해야 하고 부실률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질의했다.

변 후보자는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 부실률을 줄여나 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인사특위는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광주시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용섭 광주시장이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이달 말 착공

6개 공구 시공사 중 2공구 탈락
교통지장 없는 구간 먼저 시작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기공식

지난 5일 기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착수한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6개 공구)가 오는 23~27일께 '착공계'를 제출하고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착공계는 공사금액, 공사 관련 업체, 공사의 시작일과 예상 마감일 등을 기록한 문서로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절차다.

2공구 우선순위업체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조달청 시공사 선정 종합평가에서 탈락하면서 6개 공구별 공사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지만 광주시는 이달중 착공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마감된 국가종합전자조달을 통해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공사' 6공구에 대한 각 공구별 시공사(최종 낙찰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달청은 국가전자조달과 종합평가를 거쳐 지난 2일 1공구 롯데건설(주) 컨소시엄(창대아이엔지·뉴삼원종합건설), 3공구 주식회사 태영건설 컨소시엄(미래도건설), 4공구 주식회사 한라건설(국제건설), 5공구 주식회사 한화건설 컨소시엄(건제건설), 6공구 경남기업(주) 컨소시엄(화성산업·삼흥종합·선웅건설) 등 5개 공구 시공사를 선정하고 광주시에 통보했다.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들은 지난달 20일 개찰결과 모두 우선순위로 선정됐던 업체들이다.

다만, 2공구는 우선순위업체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관련서류 제출이 늦어져 조달청이 지난주에야 종합평가에 들어갔는데 평가과정에서 하도급 관련 부분에 문제가 드러나 시공사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에 따라 2공구 2순위인 한신공영(주) 컨소시엄(삼보건설)이 우선순위 지위를 이어받아 종합평가를 받는다.

조달청은 추석연휴 이후 한신공영(주) 컨소시엄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시공사 선정에 대한 종합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2공구 시공사가 선정되면 각 공구별로 정식 공사계약을 체결해 늦어도 23~27일 주간에 착공계를 내고 이달중에 도시가스가 없고 교통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간부터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미 착공에 대비해 도로과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전남대~첨단지구를 지나 다시 시청으로 이어지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총연장 41.8km 순환선으로 총 2조1천761억원(국비 60%·지방비 40%)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호선 건설 사업은 모두 3단계로 나눠서 추진되는데 2023년 개통 예정인 1단계 구간은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을 잇는 17.06km다.

오는 2023년 1단계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 도시철도 2호선이 완전 개통되면 광주 대부분 주요생활권이 30분 내로 연결돼 역세권 개발은 물론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발전이 기대된다.

김대용기자 ksh430@srb.co.kr

광주시, 제2회 추경예산 5조7천751억 편성

광주형일자리 지원 등 중점 투자

광주시는 제1회 추경 대비 1천709억원(3.0%)이 증액된 5조 7천751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1천124억원 증액된 4조 6천599억원, 특별회계는 585억원 증액된 1조 1천152억원이다. 세입 중 지방세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추가 징수로 252억원이 늘었고 세외수입 357억원, 정부추경 반영분 등 국고보조금 491억원, 특별교부세는 41억원 등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국가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경제활성화, 미세먼지 대응 등 국가적 현안 및 지역활력화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시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책 추진 256억원 ▲일자리사업 86억원 ▲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등 14억원을 반영했다.

또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4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3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61억원 ▲인공지능 등 지역산업육성에도 31억원을 계상했다.

김대용기자 ksh430@srb.co.kr

생활을 **@**롭게!
미래를 **신**나게!

2019 영광 모빌리티엑스포

2019 Yeonggwang e-mobility Expo

2019.9.26. - 9.30. 영광스포티움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영광군, KATECH 자동차부품연구원,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주관: 국제스마트 e-모빌리티엑스포조직위원회